

일자리·임대주택...‘화순만의 출산정책’ 눈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고, 신혼부부에겐 집 주고,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부터... 화순군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화순’을 비전으로, ‘아이 2명은 기본인 가정 실현’을 목표로 한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전남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2016년 기준 1.126명)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군은 단기적으로 2022년까지 합계출산율을 전남 평균인 1.466명으로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는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중점추진사업 4개 분야 19개 사업과 계속사업 5개 분야 38개 사업 등 총 57개 사업이 담겨 있다. 특히 중점추진사업은 그동안 중앙부처와 전남도의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화순군

출산·양육 종합계획 수립

첫째 아이 장려금 지급 등

57개 중점·계속 사업 추진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짰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젊은 세대를 위해 2022년까지 청년일자리 1085개 창출, 신혼부부 임대주택(청년주택) 300가구 보급, 신혼집 리모델링 비용 최대 500만원 지원 등이다.

또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둘째아이부터 지원해오던 출산양육지원금을 첫째아이부터 지원하고, 부모가 1년 전부터 거주해야만 지원하던 것을 아이 출생 당시 거주하면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금 지

원 조건을 완화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는 등 출산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도 중점을 뒀다.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아동친화도시 인증, 다자녀가정 학생 화순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의지도 담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계획도 반영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군민의 위기의식과 동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저출산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 캠페인과 출산 장려를 위한 민·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계속 사업으로는 출산여성 산후 보약, 신생아 건강관리비 및 건강보험, 영유아 영양제, 저소득 가정 기저귀·분유 등을 지원하고,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운영한다.

앞서 화순군은 올해 초에 출산보육팀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 군민 설문조사와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화순을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가능한 사업은 곧바로 추진하고, 국·도비가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공모에 나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미래세대 장학금 기탁 담양여성축산회(회장 김금옥·사진)와 가마골 상가번영회(회장 이강열), 담양교육사랑회 초대 회장 문영수 법무사가 담양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세대 장학금’으로 각각 100만원씩을 (재)담양장학회에 기탁했다. <담양군 제공>

화순-광주 고교 공동지원제

郡, 전남도교육청에 공식 요청

화순군이 전남도교육청에 광주와의 고교 공동지원제(공동학군제) 시행을 공식 요청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성사될 경우 지난 1993년 광주·전남 공동학군제 폐지된 이후 24년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화순군은 지난 1일 전남도교육청에 화순 지역민 의견을 수렴, ‘화순-광주 간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지원제는 고교 진학을 위해 광주로 떠나는 인구 유출을 막고 광주의 중산층을 화순으로 끌어들이며 인구 10만명의 교육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화순군의 숙원 정책이다.

지난해 6월 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한 만큼 광주와의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는 게 화순군 주문이다.

화순군은 협약 이후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해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개정 ▲교육경비 예산 20억원 추가 지원(2017년 61억원·2018년 64억원) ▲군민 의견수렴(군민 설문조사 결과, 고교공

동지원제 찬성 78.5%) 등을 거쳤다.

화순군은 군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지원제 시행시기를 ‘2019학년도 이후’로 요청했고 지원제 시행 범위의 경우 광주 전지역을 1순위로 꼽았다.

군은 또 전남·광주교육청의 고교 배정원칙과 통학거리 등 여건을 고려, 2순위로 광주 남구와 동구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광주 남구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은 3순위로 요청했다.

전남도교육청은 화순군의 요청에 따라 광주시와의 고교 공동지원제 시행을 위한 추진계획·일정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와 맞물려 고교 공동지원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화순군과 전남도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할 당시 화순 뿐 아니라 나주혁신도시를 비롯, 장성, 담양도 함께 연구하자는 포괄적 학군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화순=조성수기자 css@

담양군 남면 지명 가사문학면 변경 추진

가사문화권으로 일러진 담양군 남면의 지명을 가사문학면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일제식 지명인 남면을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가사문학면으로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추진코자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담양군은 지난달 24일부터 주민을 비롯한 이장단, 유관기관, 지역사회단체, 재경 담양군 남면향우회 등에 설문지를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 행정구역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면에는 조선 중종 때 건립된 소재원이 있고, 무등산이 걸쳐 있어 가사문화권으로 불린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장성 북부권 보건지소

국비예산 6억원 반영

장성군의 북부권 보건지소 신축 계획이 탄력을 받게됐다.

장성군은 장성읍 북부(성산)지역 복합기능형 보건지소 신축과 관련, 국비 지원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12일 밝혔다.

‘장성읍 북부(성산)지역 복합기능형 보건지소’는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장성을 북부권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부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까지 제공하는 복합 기능을 갖춘 의료 인프라다.

장성군은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국비 6억여원을 포함한 사업비 20억여원을 들여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군은 장성을 성산지역의 경우 30여개의 마을에 29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9년 150세대 규모의 LH 3차 아파트가 건립되면 거주 인구수가 3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부권 보건지소 신축 준비를 진행해왔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을 북부권은 장성읍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발돋움 할 지역으로, 내년에 보건지소가 순조롭게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환상적인 축제의 밤’... 담양관광사진공모전 대상작



329점 접수 큰 호응

담양 메타세쿼이아 거리, 레이저 불빛을 뿜어내는 도심 전경 등 아름다운 담양 풍경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담양군이 최근 실시한 ‘2017 담양관광사진공모전’ 수상작들은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거리 등 담양의 대표적 풍경을 렌즈에 담아냈다. 공모전에는 담양 생태 관광자원, 관광명소 등을 담은 329점이 접

수됐다.

대상작인 ‘환상적인 축제의 밤’(김현경·사진) 지난 5월 담양대나무축제 기간 중 관방제림에서 펼쳐진 환상적인 레이저쇼를 다정하게 감상하고 있는 연인의 모습을 포착했다. 주변 자연경관과 현대기술의 조화를 엿볼 수 있는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메타세쿼이아 거리의 가을 풍경을 포착한 ‘아름다운 메타길’(이재광), 녹음이 푸르른 소재원 전경을 찍은 ‘소재원 하

경’(우승민), 메타세쿼이아 거리에서 별의 궤적을 포착한 ‘담양 메타세쿼이아 별 궤적’(김정현)도 우수상 수상작에 뽑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입상작은 ‘천년 담양’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관광홍보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며 “담양지명 1000년의 해인 2018년에도 ‘담양관광 사진공모전’에 많은 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투자 가치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주인직매 H. 010-3605-5000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9억 3000만원 (평당 180만원)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조정가)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8억 5000만 (평당 60만원)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팻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협의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 협의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25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60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300만원 임대 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